

## 하버드대 韓人 수재들 '이산의 아픔' 영화화

연합뉴스 | 기사입력 2011-10-05 10:49 | 최종수정 2011-10-05 11:21



이산가족 영화 제작한 하버드대학원 교포학생들 (워싱턴=연합뉴스) 이승관 기자 = 4일 미 의회 상원빌딩에서 하버드대학원 재학 교포학생 제이슨 안(27)과 유진 정(27)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'이산가족'이 상영되고 있다. 2011.10.5 <<국제부 기사 참고>> humane@yna.co.kr

### 美 상원 빌딩에서 다큐 영화 시사회 개최

(워싱턴=연합뉴스) 이승관 특파원 = "마지막으로 가족을 봤을 때를 기억해 보라. 이제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다고 상상해 보라."

미국 의회 상원빌딩에서 4일 저녁(미국 동부시간) 상영된 다큐멘터리 영화 '이산가족(Divided Families)'은 이런 영문 자막과 함께 미국에 사는 오빠를 수십 년 만에 재회한 북한의 두 자매가 부르는 애절한 노래로 시작됐다.

이어 미국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 이차희 사무총장을 비롯한 재미 이산가족들의 안타까운 사연과 함께 마크 커크 연방 상원의원,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을 상대로 한 인터뷰가 차례로 소개됐다.

약 30분 분량의 이 영화를 제작한 것은 미 버클리대를 졸업하고 현재 하버드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재미교포 청년인 제이슨 안(27)과 유진 정(27).

같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공부하고, 외할머니가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가족과 헤어져 남하한 이산가족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두 사람은 몇 년 전 우연한 기회에 한국을 방문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됐다. 곧이어 이를 널리 알리자는 취지에서 이산가족의 아픔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기로 마음을 모았다.

특히 정씨는 영화 제작 기법을 배우기 위해 애니메이션 영화로 유명한 `픽사 스튜디오`에서 일하기도 했고, 2009년에는 함께 뉴욕에서 6.25 관련 행사를 하면서 영화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모금하기도 했다.

이후 이들은 수도 워싱턴 D.C.를 비롯해 뉴욕, 뉴저지, 버지니아, 유타, 캘리포니아 등 전국 각지를 다니며 재미 이산가족 17명을 인터뷰했고, 커크 상원의원 등의 소개로 이날 의회에서 첫 번째 시사회를 열게 됐다.

안씨는 시사회에 앞서 "한국에서 외할머니의 친척을 만난 뒤 내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"면서 "왜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고, 왜 이런 일들이 알려지지 않았을까를 생각하게 되면서 영화를 만들기로 했다"고 말했다.

그는 "이 영화를 미 전역을 돌며 대학, 교회 등에서 상영할 것"이라면서 "가능하면 한국 국민에게도 보여주고 싶다"고 말했다.



이산가족 영화 제작한 하버드대학원 교포학생들 (워싱턴=연합뉴스) 이승관 기자 = 4일 미 의회 상원빌딩에서 상영된 이산가족 영화를 제작한 하버드대학원 재학 교포 학생인 제이슨 안(27)과 유진 정(27). 2011.10.5 <<국제부 기사 참고>> humane@yna.co.kr

유씨는 "미국에는 10만명의 이산가족이 살고 있는데 이미 많은 분이 돌아가시고 대부분이 70~90대의 고령이어서 시간이 많지 않다"면서 "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고 싶어 영화를 만들었다"고 말했다.

이날 시사회에 참석한 이차희 총장은 최근 북한에서 별세한 자신의 아버지가 김일성 주석의 지시로 영화화된 `천리마 할아버지`의 실제 주인공이라고 소개한 뒤 영화를 제작한 두 청년에게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.

이 사무총장은 참석한 미국 관객들에게 "오늘 행사장을 떠나면 이런 사연을 잊어버릴지 모른다"면서 "그러나 언젠가, 어디선가 이산가족이라는 비극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뭔가 해준다면 영원히 감사할 것"이라고 말했다.

humane@yna.co.kr

### [관련기사]

- ▶ <최악 남북상황에도 끊기지 않는 서신왕래>
- ▶ "금강산 관광문제 해법은 이산가족 시범관광"
- ▶ <부산국제영화제서 놓치지 말아야 할 영화들>
- ▶ <대가지급하는 이산문제 해결방식 국감서 거론>
- ▶ <`추석상봉 무산' 남북이산가족 시름 더 깊어져>

<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> <포토 매거진>

<저작권자(c)연합뉴스. 무단전재-재배포금지.>

---

이 기사 주소 <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etc&oid=001&aid=0005299705>

---

인쇄하기

취소